

조선시대 문헌 속의 쑹족(壯族) 영웅 농즈가오(農智高)에 대한 기록 고찰*

장정해**

<目 次>

1. 머리말
2. 중국 문헌과 쑹족 설화 속의 농즈가오(農智高)
3. 조선시대 문헌 속의 농즈가오 관련 기록
4. 맺음말

1. 머리말

농즈가오(農智高: 1025~1055)는 중국의 최대 소수민족인 쑹족(壯族)의 민족 영웅이다.¹⁾ 그는 일찍이 송대 인종(仁宗: 1022~1063) 시기에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지역에서 대남국(大南國)을 세우고 인혜황제(仁惠皇帝)라 칭하며 독립 왕국을 건설하였다가, 송의 명장(名將) 적청(狄靑)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대리국(大理國)으로 피신한 이후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농즈가오의 칭제 행위는 베트남과 宋 양대 패권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던 남방 소수민족의 저항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북송(北宋: 960~1127) 시기 최대의 변란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양극화되어 중국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간주되지만, 쑹족은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숭배한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1) 農智高(壯文: Nungz Ciqgau) 중국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의거해 '농즈가오(Nong Zhigao)'로 표기한다. 쑹족 이외의 기타 인물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익숙한 한국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농즈가오는 좡족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타이족(岱族), 농족(農族), 태국의 타이족(泰族), 미얀마의 산족(撣族) 등에게 선조로서 숭배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로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역사기록이 전해진다.²⁾ 농즈가오는 조선시대 문헌에도 출현하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언급된다. 중국 소수민족의 영웅이자 중국 역사상 반란의 상징적 인물이 우리나라의 문헌에 대거 언급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당시의 지식인들이 어떤 상황 하에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였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의 농즈가오에 관한 연구는 단지 베트남과 송대의 변방 연구의 차원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을 뿐,³⁾ 그의 행적이나 인물 형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즈가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우선 중국 문헌과 좡족 설화에 나타난 농즈가오의 인물 형상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이 토대 위에 조선시대의 문헌 속 농즈가오의 기록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당시 지식인들이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문헌과 좡족 설화 속의 농즈가오(農智高)

논의에 앞서 농즈가오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송 인종 천성(天聖) 3년(1025)에 당유주(儻猶州: 廣西壯族自治區 靖西市 일대)의 수령이었던 아버지 농취안푸(農奎福)⁴⁾와 어머니 아농(阿農)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농취안푸는 광원주(廣源州: 베트남 高平省 廣淵縣 일대)를 중심으로

2) 范宏貴, 『同根生的民族』, 北京, 民族出版社, 2007年, 53-56쪽. 黃玲, 「記憶, 實踐與文化遺產: 中越跨境族群農智高信仰比較研究」, 『廣西民族研究』, 2014년 第6期(總第 120期), 87-88쪽.

3) 이 방면의 기존 연구 논문으로 이근명, 「11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34호, 2011. 윤승연, 「전통시대 베트남 중국의 대외관계 - 11세기 베트남의 중국 침략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第92輯, 2014. 10. 송정남, 이강우, 「越中關係에 관한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8, 2004 등이 있다.

4) '農奎福'은 문헌에 따라 '農存福'로 기록되기도 한다.

로 1029년에 장생국(長生國)을 건립하고, 자신을 소성황제(昭聖皇帝), 아내는 명덕황후(明德皇后)라 칭했다. 장생국은 1039년에 베트남의 이태종(李太宗)에게 멸망당했고, 농취안푸는 장자인 농즈충(農知聰)과 함께 포로로 베트남으로 잡혀가서 피살된다. 농즈가오는 14세 때 모친과 함께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온 후에 당유주를 기반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1041년 대력국(大曆國)을 세운다. 그러나 이태종의 공격으로 대력국은 멸망당하고 농즈가오는 이태종의 휘하에서 광원주의 지주(知州)로서 그 일대를 다스리게 된다.⁵⁾

이후 농즈가오는 송나라를 향하여 여러 차례 복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송 왕조는 요(遼), 서하(西夏) 등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있던 상태라 베트남과의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1045년 농즈가오는 독립하여 남천국(南天國)을 세우고 연호를 경서(景瑞)라고 하였으나, 1048년 다시 이(李) 왕조의 공격을 받고 패망한다.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찾던 농즈가오는 또다시 송나라에 관직을 수여하여 줄 것과 교역(交易)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다.⁶⁾

1052년(皇祐 4년) 5월, 농즈가오는 부족 5천여 명을 이끌고 용주(邕州: 廣西壯族自治區 南寧市 일대)를 점령하고 대남국(大南國)을 세웠으며, 자신을 인혜황제(仁惠皇帝)라 칭하고 연호를 계력(啓歷)이라고 하였다.⁷⁾ 이후 농즈가오는 광서, 광동의 여러 주를 점령하면서 군사가 5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송 정부를 위협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송 인종은 그해 10월에 적청(狄靑: 1008~1057)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임명하고 농즈가오를 공격하게 했다. 1053년 정월에 적청은 먼저 파견되어 온 여정(余靖), 손면(孫沔) 등과 더불어 곤륜관(崑崙關: 昆侖關이라고도 함. 廣西壯族自治區 邕寧縣, 賓陽縣 일대), 귀인포(歸仁鋪: 南寧市 三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⁸⁾ 패망

5) 范宏貴, 위의 책, 56-57쪽. 范宏貴, 「農智高及其影響」, 『廣西民族研究』, 1995년 第2期. 102-103쪽. 이근명, 「11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34호, 2011, 177-180쪽 참고.

6) (元) 脫脫 등, 『宋史』 권495, 「蠻夷三·廣源州」, 臺北, 鼎文書局, 14215쪽.

7) (明) 陳邦瞻, 『宋史紀事本末』(『乾隆御覽四庫全書薈要』本) 卷31 「農智高」: “智高卽州建大南國, 自稱仁惠皇帝, 改元啓歷, 置官屬.”

한 농즈가오는 교전 중 살아남은 군사를 이끌고 대리국(大理國)으로 피신을 한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1055년(至和 2년) 대리국에서 ‘처형되었다’는 설과 ‘행방을 알 수 없다’의 두 가지 설이 있다.⁹⁾

그의 생애와 전쟁에 대한 기록은 중국 문헌에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정족의 자료로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들을 참고할 수 있다. 농즈가오에 대한 양측의 평가는 매우 상이(相異)한데, 중국 역사서에는 반역의 상징으로 정족의 설화에서는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상반된 묘사에는 당시 적대 관계에 처해 있던 양대 세력 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양측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문헌 속의 농즈가오

요(遼), 서하(西夏) 등 북방 이민족의 위협에 시달렸던 송대의 역사에서 남쪽 변방을 위협하였던 농즈가오의 독립 선포는 매우 중대한 변란으로 간주되어서, 송대를 비롯한 이후의 역사서와 문인들의 소설, 산문에 다수 기록되었다.¹⁰⁾ 중국 문헌을 살펴보면 농즈가오의 가계와 성격, 전투와 죽음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

8) 張聲震 主編, 覃彩鑾 編著, 『壯族史』, 廣州, 廣東人民, 2002, 346-348 참고.

9) 曾鞏, 『隆平集』(『欽定四庫全書』本) 권20 「妖寇」에는 “농즈가오가 대리국에서 이미 주살 당했다.(智高已爲大理國所殺)”라고 하였고, (元) 『宋史全文』(『欽定四庫全書』本) 권9上, 「宋仁宗五」, 「至和 2年六月己丑」에도 “농즈가오 역시 대리에서 살해되어서, 그 수급이 함에 담기어 서울로 보내졌다.(智高亦自爲大理所殺, 函其首至京師)”라고 하여 대리국에서 살해당했다고 적었다. (明)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권31 「儂智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나 (南宋) 張端義, 『貴耳集』 권中에는 “농즈가오가 비록 응주에서 패했지만, 다른 나라로도 망갔다.(儂智高雖邕州潰, 卽逃亡外夷)” (臺北, 木鐸出版社, 1982, 39쪽)라고 하였고, 『宋史』 권495 「蠻夷三·廣源州」에는 “그의 존망에 대해 알 수가 없다(其存亡, 莫可知也)”라고 하여 그의 최후에 대해 모른다고 적었다.

10) 대표적인 문인들의 기록으론 북송(北宋) 司馬光(1019~1086) 『涑水紀聞』 권13, 曾鞏(1019~1083) 『隆平集』 권20, 沈括(1031~1095) 『夢溪筆談』 권13 「權智」, 권25 「雜志」 등이 있고, 역사서의 기록으론 남송(南宋) 李燾(1115~1184) 『續資治通鑑長編』 권 180, 원(元) 脫脫 등 『宋史』 권495, 「蠻夷傳三·廣源州」, 명(明)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卷31 「儂智高」, 청(淸) 徐松 『宋會要輯稿』 「蕃夷」 등이 있다.

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농즈가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탄생과 부모: 먼저 농즈가오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어머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증공(曾鞏) 『응평집(隆平集)』 권20 「妖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광원주의 도적 농즈가오는 남만 상인의 아들이다. 그의 모친 아농은 좌강 무록 부족이었으나 교지의 당유주 지사인 농취안푸에게 시집갔다. 농취안푸가 교지인에게 포로로 잡히자 아농은 남만 상인에게 시집가서 농즈가오를 낳았다. 농즈가오는 자라서 그 아버지를 죽였다. 아농은 다시 특마도 사람 농사칭의 아내가 되었다. 황우 4년 농즈가오는 무리를 모아서 중국을 침범했다. 처음에 응주를 함락시키고 그 모친 아농을 황태후로 잠칭했다. 아농은 사납고 계략이 있었다. 아농은 아이들의 고기를 먹었는데, 가끔씩 직접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해서 농즈가오에게 먹였다.¹¹⁾

『응평집』에는 농즈가오가 농취안푸(農全福)의 친아들이 아니라, 모친 아농이 개가(改嫁)하여 낳은 아들이며 자라서 친부를 살해하고 농취안푸의 아들로 자칭했다고 적었다. 또한 그의 모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고기를 먹는 잔인한 여성이라고 하였다. 증공의 기록은 농즈가오를 매우 부정적으로 타자화(他者化)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기록을 통해서 송대 지식인들의 농즈가오에 대한 적개심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증공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마광은 『속수기문(涑水紀聞)』 권13에서 “농즈가오는 대대로 광원주 우두머리의 후예이다.(農智高, 世爲廣源州酋長後屬)”라고 하여 농즈가오가 농취안푸의 아들임을 밝혔고, 아농의 식인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증공이 기록한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¹²⁾ 그러나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11) 曾鞏, 『隆平集』 권20 「妖寇」: “廣源州蠻寇農智高, 蠻酋之子, 其母阿儂左江武勒之族, 轉至交趾, 適儂猶州知州農全福子, 全福爲交趾所虜, 阿儂改適蠻酋生智高, 智高長, 遂殺其父. 阿儂又爲特磨道儂夏卿之妻. 皇佑四年, 智高聚衆入寇, 初陷邕州, 遂僭號稱其母阿儂爲皇太後, 阿儂凶悍有謀, 嗜小兒肉, 閑以具庖, 食智高.”

12) 농즈가오 부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白耀天, 『農智高: 歷史的幸運兒與棄兒』, 北京, 民族出

권167, 권175, 남송 李攸의 『宋朝事實』 권16 「平廣南蠻賊儂智高」, 『宋史』 권495, 「蠻夷三·廣源州」 등은 『용평집』의 견해를 받아들여 기록함으로써 위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착화시켰다.

(2) 악행에 대한 기록: 중국 문헌 속의 기록에서 농즈가오는 성격이 사납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잔인무도한 사람이다.

농즈가오는 사납고 교활하여 교지사람이 싫어했다.....농즈가오 부자는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은혜를 모름이 범과 이리와 같다.¹³⁾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즈가오가 물이 불어날 때를 틈타서 군사들을 이끌고 응주를 침범하여 응주자사 진공을 죽이고 성안의 백성을 마구 죽였다.¹⁴⁾

[농]지고¹⁵⁾는 군대를 일으키고 나서 거의 1년여 동안, 마치 무인지경을 가는 것처럼 한 지방을 포악하게 짓밟았다. 관리와 백성들은 그가 남긴 해독을 견디지 못하여, 조정에서는 사면령을 내리고 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그 아프고 다친 곳을 어루만져주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비로소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¹⁶⁾

이상의 기록들은 농즈가오가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군대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도륙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한 묘사들은 농즈가오의 비도덕적이고 교화되지 아니한 면모를 부각하는

版社, 2006, 107-122쪽. 黃振南, 「儂智高生卒年月及血親關係試辨」, 『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5년 第3期, 64쪽을 참고할 수 있다.

13) (宋) 司馬光, 『涑水紀聞』 권13: “智高桀黠難制, 交趾惡之.....智高父子貪詐無恩, 譬如虎狼.”

14) (宋) 魏泰, 『東軒筆錄』(『欽定四庫全書』本) 권12: “未幾智高乘水漲, 以兵犯邕殺拱而屠其城”

15)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농즈가오’를 ‘농지고’로 표기하였으므로 여기서도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조선왕조실록』 등 번역본 인용 시에도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 (이하 주 생략)

16) 동북아역사재단, 『宋史外國傳譯註 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193쪽. (元) 脫脫 등, 『宋史』 권495, 「蠻夷三·廣源州」: “智高自起兵幾一年, 暴踐一方, 如行無人之境, 吏民不勝其毒”

역할을 하여서, 후대에 농즈가오는 야만적인 인물로 각인되게 된다.

(3) 전쟁에 대한 평가: 宋人은 농즈가오가 일으킨 전쟁을 반란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중국 문헌 곳곳에서 나타난다.

광원주 오랑캐 농즈가오가 반란을 일으켰다.¹⁷⁾

광원주 오랑캐 농즈가오가 옹주를 침입하였다.¹⁸⁾

민간의 반응도 “[민간에서는], “농가(農家)에서 씨 뿌리고 적가(糴家)에서 거둬들인다(農家種, 糴家收).”는 노래가 불렸다. 얼마 후 [농]지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적]청에게 진압됨으로써 모두 이 노래처럼 되었다.¹⁹⁾

이상과 같이 중국 문헌에서는 농즈가오의 전투를 불의(不義)한 것으로 규정짓고, 반란(反, 叛)과 침입(寇)이라 간주하였다. 그를 외적(外敵)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반란자, 반역자로 호칭하였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방 이민족과의 전쟁을 외적의 침입으로 간주한 반면에, 남방을 영내로 여겨 그들과의 전쟁을 정벌, 토벌로 여겨왔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²⁰⁾ 송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도적(盜賊), 만적(蠻賊), 요사한 도적(妖寇), 내부의 적(內寇), 반적(叛賊) 등의 명칭을 써서 농즈가오를 비하하였다.²¹⁾ 이러한 기록들은 향후 농즈가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역사가들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농즈가오는 중국에서 반역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17) (元) 脫脫 등, 『宋史』 권12 「仁宗本紀」: “廣源州蠻儂智高反”

18) (宋) 余靖, 『武溪集』(『摛藻堂四庫全書薈要』本) 권5 「大宋平蠻碑」: “廣源州蠻儂智高寇邕州”

19) 동북아역사재단, 위의 책, 193 쪽. (元) 脫脫 등, 『宋史』 권495, 「蠻夷三·廣源州」: “百姓始得更生云. 先是, 謠言: 「農家種, 糴家收」已而智高叛, 爲青破, 皆如其謠.”

20) 성시훈, 「적가장소설의 기원 및 변천」, 『배화논총』 제19집, 2000년, 5월, 61쪽 참고.

21) 이 방면의 논의는 莫家仁, 「儂智高: 沸澗劫掠의 千年 議題」, 『廣西民族研究』, 2000년 第2期(總第60期), 89쪽 참고.

2) 靑族 설화 속의 농즈가오

농즈가오에 관한 설화는靑族 사회에서 다양하게 전승된다.靑族의 설화에는 농즈가오에 대한靑族 공통의 역사기억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화들을 분석해 보면 중국문헌의 묘사와는 전혀 다른 지혜롭고 영웅적인 농즈가오와 대면하게 된다.

(1) 비범한 탄생과 성장:靑族의 설화 속에서 농즈가오는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다. 농즈가오의 비범성은 어렸을 때부터 드러나는데, 그가 태어날 때에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났거나 용맹무쌍한 청년시절에 관한 설화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어느 봄날에 당유주의靑族 수령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붉은 빛이 집에 가득 차면서 제비 떼가 날아와서 지붕 위에 앉았다가 날아올라 춤을 추면서 '지우지우(찍찍)' 울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즈가오'라고 지었다고 한다.....그는 자라면서 능률한 청년이 되었고 농사일도 잘했으며 집을 지고 산을 평지처럼 다녔다. 무예도 뛰어나고 권법에 능하여 이삼십 명이 덤벼도 이기지 못했다.²²⁾

농즈가오의 탄생 고사에 언급된 '상서로운 붉은 기운이 돌고 제비가 날라드는' 등의 전조는 그가 제왕의 운명을 띠고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또한 설화에 전승되는 청소년기의 용맹함과 영웅적 면모를 통해서도靑族이 그를 영웅으로서 숭배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靑族 사회에는 농즈가오가 '토사(土司)의 딸'과 '선호(仙狐)'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그가 자고 있을 때 시녀가 침상 위

22) 「智高捉龍駒」:「傳說在幾百年前的一個春日,儂猶州壯寨頭人家裏,誕生了一個嬰兒.在他出生下來的時候,紅光滿屋,成幫成群的燕子都飛來歇在他家的屋頂上,時而翩翩飛舞,時而啾啾鳴叫,父親給他起名叫'智高'.....他在一年年長大,成了一個身材魁梧的小夥子,不但莊稼活做得好,挑擔子上坡如走平地,而且武藝高強,一身拳脚工夫,二三十人近身不得.」(원래 이 고사는 廣西靖西縣三套集成領導小組編著,『中國民間故事集成廣西卷·靖西民間故事集』(第一集)에 수록된 것이나(1988년), 여기서는 凌春輝,「論壯族民間傳說中的儂智高」,『百色學院學報』第20卷 第1期, 2007년, 2월, 31쪽에서 정리한 것을 인용함.)

에 금빛 나는 용을 보았다는 「金龍顯身」 고사 등이 전해지는데 모두 농즈가오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²³⁾

농즈가오의 모친 아눔에 대해서도 쟁족은 ‘아왕(姪王)’으로 부르며 숭배하는데, 중국문헌의 기록과는 달리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친의 형상으로 쟁족에게 인식되고 있다.²⁴⁾

(2) 선행에 대한 설화: 중국문헌에서 농즈가오는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 인물이다. 그러나 쟁족의 설화에서 그는 동물이 곤경에 빠졌을 때도 구해주는 자비심을 가졌고,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였다. 아래의 설화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농즈가오는 관군이 와서 수색할 때 백성들이 연루될까 고민을 하다가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죽순껍질로 넓이가 몇 자나 되고 길이가 석 자인 짚신을 만들고, 오동나무를 물에 불려 삼십 근의 쌀밥을 담을 수 있는 나무그릇을 여러 개 만들었다..... 밤중에 산 아래의 지신 사당에 들어가 칼로 사당 문에 시를 한 수를 새겼다. “지금 내가 이미 신이 되어 밭이 석 자, 키가 다섯 길인 몸이 되었다. 저녁에는 황제를 죽이고 아침에는 관리를 죽여 백성들이 영원히 태평을 누리게 하겠다.”.....관군이 시와 큰 짚신, 큰 나무그릇을 보고서 학질을 앓는 것처럼 떨다가 말에 올라타고 도망을 갔다.²⁵⁾

커다란 나무 위에서 몸이 번쩍거리는 큰 뱀 한 마리가 원숭이 한 마리를 삼키고 있었다. 원숭이 무리가 급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다. 농즈가오가 칼을 뽑아들고 큰 뱀을 내리치자 큰 뱀은 원숭이를 뱉어내더니 목을 세우고 반격을 했다. 순식간에 큰 뱀이 농즈가오를 꼭 물었는데 농즈가오는 침착하게 큰 뱀의 배를 힘껏 찔렀다.....잠시 후 큰 뱀은 오장이 흘러나와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고 늙은 원숭이는 살아나게

23) 凌春輝, 위의 논문, 31-32쪽.

24) 范宏貴, 위의 논문, 101쪽.

25)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廣西卷)』, 北京, 新華書店, 2001, 104쪽. 「農智高成神」: “他又擔心官兵來搜捕, 百姓還要遭殃, 想了想, 用棕衣和苦竹筍殼編了好多雙尺來寬, 三尺來長的草鞋, 又用泡桐木挖了好多個能裝三十斤米飯的木碗.....夜間, 再摸山下社神廟, 用刀在廟門刻了一首詩: ‘如今老農已成神, 三尺腳板五丈身; 晚殺皇帝早殺官, 永保百姓享太平’.....官兵見了詩和大草鞋, 大木碗, 嚇得發抖像打擺子, 翻身上馬就逃.”

되었다.²⁶⁾

이상에서 묘사된 농즈가오는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이며, 곤경에 빠진 동물도 구해주는 선하고 용맹한 인물이다. 이러한 면모를 추앙하여 왕족은 그를 자신의 조상신이자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오늘날 왕족 사회에 농즈가오를 숭배하는 사원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²⁷⁾ 이를 통해서도 그를 향한 왕족의 애정과 존경심을 살펴볼 수 있다.

(3) 전쟁에 대한 평가: 왕족은 농즈가오가 일으킨 전쟁을 정의(正義)의 전쟁, 즉 기의(起義)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농즈가오가 병마를 거느리고 황제와 싸운 것은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위해서였다. 왕족 백성들은 그를 보배로운 독룡(獨龍)의 아이라고 여겼다.²⁸⁾

왕족은 그가 송의 황제와 싸운 이유가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믿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농즈가오가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설화에서는 농즈가오를 돕는 많은 조력자들이 등장한다. 지혜로운 노인이나 거미, 원숭이 등이 등장하여 그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식물인 파초(芭蕉)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6)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 위의 책, 102쪽. 「儂智高力射猴王箭」: “一棵大樹上, 一條閃光花花的大蛇正張口吞吃一只老猴. 這只猴子已被吞進一半, 群猴急得東竄西逃, 無力解救. 儂智高抽刀直刺大蛇. 大蛇吐出猴子, 揚脖反擊. 瞬間, 大蛇把儂智高緊緊絞住, 但儂智高臨危不亂, 奮力將刀刺進大蛇腹部……不一會兒, 大蛇五臟流出, 扭動幾下, 便死去了. 老猴王得救了.”

27) 서남지역의 역사연구가 滕蘭花는 「廣西南寧儂智高崇拜淺談」, 『文山學院學報』, 第30卷 第2期, 2017년 4월, 68쪽에서 농즈가오가 군사를 일으킨 광서 서쪽 지역에 농즈가오를 숭배하는 사원이 많고 제사의식도 전해지며, 廣西壯族自治區 南寧 주변 지역에서도 농즈가오를 숭배하는 사원이 여러 곳 있다고 하였다.

28) 陳慶浩, 王秋桂 主編, 『廣西民間故事集(2)』, 臺北, 遠流出版社, 1989, 168쪽. 「儂智高之傳說」: “他帶兵馬跟皇帝火拚, 爲百姓爭太平日子, 壯族百姓都把他當寶貝獨龍崽看待.”

농즈가오가 광서에 있을 때, 楊六郎이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했다. 농즈가오가 도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파초가 울창하였다. 농즈가오의 부대가 나아가서 파초를 베었다. 楊六郎 쪽 사람이 파초의 가운데 부분이 높게 자란 것을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필시 멀리 도망갔으리라 여기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²⁹⁾

이처럼 파초가 빠르게 성장하여 농즈가오의 도망을 도왔기 때문에,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馬關縣 馬酒村 사람들은 파초를 농즈가오의 수호신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즈가오를 기리는 六月節 제사에는 파초 잎을 제단에 깔아 놓는 풍습이 전해진다.³⁰⁾ 이와 같이 농즈가오가 일으킨 전쟁이 정의롭고 애민정신에서 나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좡족의 설화에는 그가 전쟁에서 졌더라도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추격하는 적청(狄靑)을 희롱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적청은 문지기를 보고 큰소리로 “농즈가오를 보았느냐?”라고 꾸짖자, 문지기가 목을 흔들며 “우리는 문만 지킬 뿐이지 사람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소” 했다. 적청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수색한 후에 농즈가오가 보이지 않자, 두 명의 문지기를 향해 보검을 겨루고 “농즈가오가 어디 숨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겠다” 라고 외쳤다.³¹⁾

농즈가오의 군대가 시냇가에서 한가롭게 물을 튀기며 말을 씻기고 있는데 눈 같이 흰 물보라가 말 등에서 철철 흘러내렸고, 냇가에는 많은 병사들이 물속에서 갈을 갈고 있었다. 적청이 당황해서 ‘하늘이 농즈가오를 도와주려고 엄동에 물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적청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급히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 관군이 곤히 잠에 떨어졌을 때를 틈타서 농즈가오의 군사는 적진으로 진입해서 포위를 뚫고 도망을

29) 羅彩娟, 『千年追憶: 雲南壯族曆史表述中的儂智高』, 桂林, 西師範大學出版社, 2012, 170쪽. “儂智高在廣西, 楊六郎追看趕他, 要殺儂智高, 儂智高跑到一條溝, 那裏有個芭蕉箐, 儂智高部隊上前把芭蕉砍了. 楊六郎的人看見芭蕉心冒出了, 就認爲芭蕉心長那麼高了. 過了那麼久了, 肯定是走遠了, 就沒有追得上了.”

30) 羅彩娟, 위의 책, 165-170쪽.

31)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 위의 책, 103쪽. 「儂智高成神」: “狄靑見守門人, 大聲喝問: ‘你們看見儂智高沒有?’ 守門人脖子一扭說: ‘我們只管看門, 從來不管看人.’ 狄靑進廟去搜了一陣, 不見儂智高, 把寶劍按在兩個守門人頭上, 大叫: ‘儂智高躲在哪裏? 不講, 就挖你們的心肝?’”

갔다. 날이 밝자 적청이 군사를 이끌고 청룡관 위로 갔다. 냇가에는 백미만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그때서야 농즈가오가 이것을 물이라고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³²⁾

농즈가오가 패장(敗將)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은 설화를 통하여 그의 영웅성과 용맹함을 전승하면서 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를 추격하는 적청을 회화함으로써 송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왕족의 설화를 통해 살펴본 농즈가오는 신적이고 정의로우며, 지혜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왕족의 공통된 기억을 바탕으로 농즈가오는 오늘날까지 왕족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자 영웅으로 인식되며 추앙받고 있다.³³⁾

3. 조선시대 문헌 속의 농즈가오 관련 기록

복숭 아래로 천년동안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던 농즈가오가 한국의 문헌에도 기록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농즈가오에 대한 기록은 정작 비슷한 시기인 고려(高麗: 918~1392)시대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시기(1392~1910) 문헌에 등장하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26년 계사(1593년, 만력 21년) 3월15일

32) 「智突青龍關」: “卻見農智高的軍隊在小溪邊悠閑的潑水洗馬, 那雪白雪白的水花潑在馬背上, 刷刷地往下流, 溪邊不少戰士在就著溪水磨刀. 狄青慌了, 想:“莫不是老天有意要解救他, 才在隆冬裏放水給他?” 青的腿都發軟了, 急忙下山. 當晚, 農軍趁勞累的官兵呼呼大睡的時候, 殺進敵營, 突圍而去. 天亮後, 狄青帶著軍隊上到青龍關上, 只見溪邊零星星的白米, 才恍然大悟, 原來農智高用的就是這種‘水’.” (凌春輝, 「靖西農智高傳說的美學內涵—靖西民間文學研究之二」, 『廣西右江民族師專學報』第13卷 第3期, 2000年9月, 34쪽)

33) 1962년 4월 2일 왕족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 黃現璠(1899~1982)은 『廣西日報』에서 「農智高起兵反宋是正義的戰爭」이라는 글을 써서, 농즈가오를 ‘폭정에 대해 반항한 인물’로, 그가 일으킨 전쟁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평가를 뒤엎는 주장을 하였다. 사료에 근거하여 치밀한 논증을 펼친 그의 주장은 왕족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학자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후 농즈가오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즈가오에 대한 그의 인식은 설화 속에 반영된 왕족의 농즈가오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이 이르기를, “현소(玄蘇)가 아직 용산(龍山)에 있는데 명장은 그의 머리를 바치라고 성화같이 독촉하니 제독의 행위가 적청(狄靑)과 다르구나.”하였다.³⁴⁾

현소(玄蘇: 1537~1611)는 일본의 승려로 임진왜란 때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참모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위의 기록은 명의 제독 이여송(李如松: 1549~1598)이 아직 사살하지 않은 현소의 수급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자,³⁵⁾ 선조가 적청과 농즈가오의 사례를 들어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宋史』 권290, 「狄靑」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황사복(黃師宓) 등을 응주 성 아래에서 효수하고, 적군의 시신을 모아 성의 북쪽 모퉁이에 큰 무덤을 만들었다. 당시에 금룡의(金龍衣)를 입은 도적의 시신이 있었다. 모두 농즈가오가 이미 죽었으니 임금께 이를 알리자고 하였다. 이에, 적청이 “거짓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농즈가오를 놓칠지언정 조정을 속여서 공을 탐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했다.³⁶⁾

선조는 살아있는 현소의 수급을 재촉하는 명의 장수를 직접 비난하기 어려운

34)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오 2번째 기사. “上曰: 玄蘇方在龍山, 天將方責納其頭不已, 提督所爲, 其異乎狄靑矣.” 본고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은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18년 9월 20일>에서 인용함. (이하 주 생략)

35)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오 2번째 기사 注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이때 명병의 군중에 와언(訛言)이 일어나기를 ‘평양에서 성을 공격할 적에 현소가 우리 군사에게 사살되었다.’ 하자, 제독이 이를 듣고 곧바로 우리나라에 자문을 띄우기를 ‘실은 이여백이 사살한 것인데 조선이 숨겨서 자기네 공으로 삼으려고 그 수급(首級)을 감추어 두었다.’고 하며, 계속하여 보내라고 재촉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회자(回咨)를 보내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時, 天兵軍中訛言扇動: “平壤攻城時, 玄蘇被我軍射殺, 提督聞之, 卽移咨我國.” 云云. “實李如栢所射殺, 而朝鮮掩爲己功, 隱置其首級.” 催送不已, 我國累度面咨, 明其不然)”

36) (元) 脫脫 등, 『宋史』 권290, 列傳第 49 「狄靑」: “梟黃師宓等邕州城下, 斂屍築京觀於城北隅. 時賊屍有衣金龍衣者, 衆謂智高已死, 欲以上聞. 靑曰: ‘安知非詐邪? 寧失智高, 不取誣朝廷以貪功也.’”

상황에서, 적청이 농즈가오 시신의 진위 여부를 먼저 묻고, 공을 탐하지 않았던 사실에 빗대 명장(明將)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지배계급들이 적청과 농즈가오의 전투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며, 적청의 사심(私心)이 없는 태도에 대해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31년(1598년) 11월 24일 기사에는 왜적이 물러난 것을 기뻐하며 여러 신하들이 선조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영돈녕부사 이산해, 해원 부원군 윤두수(尹斗壽), 행 지중추부사 정탁(鄭琢) 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왜적과 7년 동안 대치하고 있었지만 왜적의 진영 하나도 섬멸하지 못하고 적추(賊酋)로 하여금 버젓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으니,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이 모두 도망쳐 군량 수송이 곤란하니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마치 끊어지는 목숨과 같이 위급합니다. 왜적이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무른다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3로의 왜적이 일시에 도망쳤으니 후일의 환란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입진년 이후 이런 날이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이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선왕(周宣王)이 태원(太原)까지 험윤(獫狁)을 몰아냈고, 송 인종(宋仁宗) 시대에 비록 농지고(農智高)를 효수(梟首)하지는 못했지만 청사(靑史)에 위대하게 여겼으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금일의 일은 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신들이 기쁨을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³⁷⁾

선조 31년 11월23일 좌의정 이덕형은 11월 19일에 왜적이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갔다는 글을 올린다. 다음날 일본군의 퇴각 소식을 들은 여러 신하들이 선조에게 왜적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했으나 도망을 갔으니, 험윤(獫狁)을 몰아낸 주 선왕과 농즈가오를 물리친 송 인종처럼 선조의 공로가 충분히 크다고 하였다.

37)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領敦寧府事李山海、海原府院君 尹斗壽、行知中樞府事鄭琢等啓曰: ‘我國之於讐賊, 七年對壘, 猶不得勦滅一陣, 使賊酋, 揚揚渡海而去, 其爲痛憤, 曷有紀極? 但人民盡亡, 運糧難繼, 我國今日之勢, 岌岌奄奄, 正如垂絕之命。賊若更留一日, 則事無可爲, 幸而三路之賊, 一時遁歸。後日之患, 雖難保其必無, 而壬辰之後, 惟此一日, 豈非天之所佑而然耶? 周宣驅逐獫狁, 至于太原, 而宋 仁宗之世, 雖不鳥濃(農)智高之首, 靑史題之, 豈無所以? 今日之事, 爲社稷爲生民, 臣等不勝幸喜之至, 敢此來啓。’ 答曰: ‘知道。’”

협운은 주나라 이전부터 중국의 북방을 위협했던 이민족이다. 진한(秦漢) 이후 흉노(匈奴)라 불렸는데, 협운이나 흉노는 전통적으로 오랑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³⁸⁾ 「선조실록」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농즈가오’를 새롭게 등장시켜 외적(外敵)을 비유하는 말로 삼았다.

신하들의 말에 선조는 “알았다”는 짧은 말로 대꾸했는데, 왜군을 완전히 격파하지 못한 현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에 대해 실록의 사신(史臣)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군신 상하가 마땅히 조석으로 와신 상담하며 기필코 이 왜적을 멸망시키고 말아야 하는데, 태연하게 세월만 보내다가 끝내 왜적의 괴수가 군대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왜장을 죽이고 기(旗)를 빼앗아 조금이나마 임금의 치욕을 씻지 못하였으니, 당시의 신하들은 죽어도 죄가 남는다. 그런데 지금 대궐에 나아가 치하하면서 기쁘고 다행스럽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옛일을 인용하여 아첨하는 소지로 삼았다. 대저 협운과 농지고를 어찌 왜적에다 비할 수 있겠는가?⁴⁰⁾

사신(史臣)은 여기에서 아첨을 일삼는 신하들을 질책하고, 왜군을 도적(盜賊)으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물리쳐야 할 원수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역사에서 변방을 소란스럽게 한 대표적인 존재들인 협운과 농즈가오에 대비하여도 더 나쁘다고 평론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개국 이래 처음으로 임진왜란이란 큰 전쟁을 겪게 된 조선 지식인들의 충격과 전쟁을 야기한 왜적에 대한 혐오를 엿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농즈가오는 외적(外敵), 특히 ‘倭賊’, ‘倭將’을 비유하는 인물로 등장하였는데, 조선시대 중, 후기에는 도적, 그중에서도 임격정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겸재집(謙齋集)』 권37 「漢城府判尹南諡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8) 김수미, 「『남제서(南齊書)』 백제전의 협운, 흉리(匈梨)와 대방(臺舫)의 실체」, 『용봉인문논총』 35권, 2006, 38쪽.

39) 이한우, 『선조 조선의 난세를 넘다』, 서울, 해냄출판사, 2007, 317-318쪽 참고.

40)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君臣上下, 所當朝夕嘗膽, 必滅此賊而後已, 而攸泛玩愒, 終使賊酋, 斂兵渡海, 猶不得斬將擄旗, 小雪君父之差, 則當時臣子, 死有餘罪, 而今乃諛闕稱賀, 盛陳喜幸之言, 援引古昔, 以爲獻諂之資, 夫獫狁、儂智高, 豈此賊之比哉?”

논자들이 공의 왜구를 정벌함이 조영평이 서강을 토벌함과 같고 임궽정을 주살함이 적무양이 농즈가오를 평정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명장이며 용맹한 신하라 하겠다.⁴¹⁾

위에서 언급한 인물은 조선중기의 무신 남치근(南致勤: ?~1570)이다. 그는 일찍이 왜구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1562년(명종17년) 임궽정(林巨正: 1521~1562)을 황해도 해주에서 잡아 효수한 인물이다. 시호는 무양(武襄)으로, 적칭의 시호와 동일하다. 여기서는 그가 임궽정을 주살한 것이 마치 적칭이 농즈가오를 죽인 것과 같다고 하여 임궽정을 농즈가오에 비유하였다. 이 일은 남치근의 후손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시문집 『약천집(藥泉集)』(1723년 간행)에도 실려 있는데, 농즈가오 세력이 세상의 안위를 흔들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임궽정이 오히려 농즈가오보다 더 위협한 인물이라고 하여 先祖의 공로를 추켜세우고 있다.⁴²⁾

송대의 역사서 편찬이 유행했던 18세기 영·정조(1724~1800) 시기에는 많은 문인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농즈가오를 언급하였다. 영·정조 때 규장각 학자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지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54권 「양엽기(盎葉記) 1」 ‘섬라(暹羅)와 일본(日本) 사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생각하건대, 후세(後世)에서 사람을 등용하되 과거(科擧)의 급제로 선비들을 한정지우고 문식된 법으로 사람을 속박하며, 또 자격(資格)을 문벌(門閥)에 따라 국한하고 막으니, 현자(賢者)는 진실로 가난과 배고픔을 달게 받다가 마르고 속이 썩어 죽겠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뜻을 품은 호탕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격노하여 도적이 되지 않으면 이따금 타국의 쓰임이 되니 국가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

41) 趙泰億, 『謙齋集』 권37 「漢城府判尹南謚狀」: “論者謂公之征倭, 如趙營平之討西羌, 誅巨正, 如狄武襄之平儂智高, 眞可謂干城之良將, 王國之虎臣.”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42) 南九萬, 『藥泉集』 第二十四 「家乘」 五代從祖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訓練院事五衛都總府都摠管公墓誌銘: “옛날 한나라의 서강, 송의 농즈가오는 그 세력이 천하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영평과 적무양의 공로를 사람들이 아직까지 칭송합니다. 공의 공로를 논한다면 어찌 조, 적의 따위의 공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昔漢之西羌, 宋之儂智高, 其勢皆不足爲天下之安危. 然趙營平, 狄武襄之功, 人到于今稱之. 以公所當者論之, 又豈趙狄之比而已哉.”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나라의 황소(黃巢)와 송나라의 농지고(農智高)·장원(張元)(장원은 장원호(張元昊)이다)과 명나라의 우금성(牛金星)은 다 낙제(落第)된 것에 격분하여 군사를 일으켜 도적이 된 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임격정과 서문(徐文)의 무리에 이르러서도 강도(強盜)로 해서(海西) 지방에서 횡행했는데, 명종(明宗) 임술년(1562)에 남치근(南致勤)을 보내어 토벌하여 목을 베었다. 그들을 부려 어거하는 데 만약 술책이 있었다면 국가에 수용(需用)되었을 것이다.⁴³⁾

남송(南宋) 장단의(張端義)의 『귀이집(貴耳集)』에는 “농즈가오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지 못하여 양광(兩廣)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후에 거인(舉人)에게도 관직을 겸할 자격을 주었다. 장원(張元)이 전시(殿試)에 낙제하자 바로 서하(西夏)로 갔는데, 이때부터 전시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⁴⁴⁾ 농즈가오가 과거에 두 번 합격했으며 벼슬이 주어지는 세 번째 진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이덕무는 이에 근거하여 황소, 농즈가오, 장원호 등이 모두 과거에 불합격하여 불만을 품고 도적이 되었거나 타국으로 갔다고 하여, 과거 급제로만 선비들의 등용을 한정 짓는 현실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거제도에 대해서 이른바 실학자들은 비판론을 펼치고 각종 개혁안을 제시하였다.⁴⁵⁾ 실학자 중의 하나였던 이덕무는 종실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서열(庶孽) 신분으로 역시 많은 사회적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43)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54권 「盡業記1」 ‘섬라와 일본의 사신(暹羅日本使臣): “愚以爲後世用人, 科第以限士, 文法以束人. 又從以資格門閥, 局之枳之. 其賢者固甘受窮餓, 枯腐而死, 至若負氣齋志, 莽宕磊落之流, 不激而作賊, 則往往爲他國之用, 非國家之利也. 故唐之黃巢, 宋之農智高, 張元(張元, 卽張元昊也), 明之牛金星, 皆憤於落第, 起而爲盜賊者也. 至於我國, 林巨正徐文之徒, 使之駕馭若有術, 亦將需用於國家矣.” (『韓國文집총간(韓國文集叢刊)』 국문 번역은 『(국역)청장관전서』 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3, 46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44) (宋) 張端義, 『貴耳集』 권下, 臺北, 木鐸出版社, 1982, 63쪽. “農智高發三解不得志, 遂起兵兩廣, 遂有兩解試攝官之格. 張元因殿試落第, 徑往西夏, 自此殿無黜落之士.”

45)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경용,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체인식』, 서울, 교육과학사, 2005, 263-271쪽 참고.

제도적 책임론을 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제껏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아 왔던 농즈가오 등을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뜻을 품은, 호탕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負氣齎志, 莽宕磊落之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들의 일탈로 간주되는 행위가 개인의 도덕적인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덕무는 농즈가오가 도적이 된 것도 벼슬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은 불공정한 사회 제도 때문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처지의 임꺽정이 나 서문 등도 국가에 수용될 기회가 있었다면 도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사회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었다.

실학자 박윤원(朴胤源: 1734~1799)과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도 누각과 성곽의 건설에서 농즈가오를 언급하였다. 박윤원의 『근재집(近齋集)』 권 21 「만하루기(挽河樓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혹자는 “적군이 한신의 모래주머니 계략을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는데, 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 군사들이 군영의 문을 닫고 자고 있으면 반드시 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혹자는 적군이 만약 농즈가오의 독약 계책을 쓴다면 또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다. 나는 “정말로 위험합니다만 도적도 이 강의 물을 마실 것이니 독을 풀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 두 가지는 근심거리가 아니다.⁴⁶⁾

만하루(挽河樓)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공산성(公山城) 금강(錦江)변에 위치한 누각의 이름이다. 영조 30년(1754년)에 충청감사 김시찬(金時燾: 1700~1767)이 건설했으며, 군사적 기능과 아울러 뛰어난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박윤원은 만하루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적군이 농즈가오의 “독약지계(毒藥之計)”를 쓰더라도 전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宋史』 권290, 「狄靑列傳」에는 “처음에 적청이 옹주에 도착했을 때 사방에 독기가 가득

46) 朴胤源, 『近齋集』 卷21 「挽河樓記」: “或曰: ‘敵人如有用韓信沙囊之謀, 則將奈何?’ 余曰: ‘當此之時, 吾軍其閉營而睡乎, 必有以遏之也.’ 或曰: ‘敵人如有用農智高毒藥之計, 則又將奈何?’ 余曰: ‘是誠危矣, 而賊亦飲此江之水, 必不爲毒也.’ 此二者, 皆不足憂矣.” (원문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서 인용)

쳤다. 혹자가 도적이 상류에 독을 풀어서 마신 자가 다수 죽었다고 하자, 적청이 매우 근심했다. 그런데 하루 밤사이에 성채 아래에 샘이 솟았다. 길어서 마시니 물맛이 달아서 모두 그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⁴⁷⁾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시기 실학자로서 기중기(起重機)를 설계하여 화성 축조에 큰 성과를 올렸던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목민심서(牧民心書)』(1818년 발행) 제10부 공전(工典) 육조(六條) 「수성(修城)」에서 농즈가오와의 교전 이후에 여정(余靖)이 성을 수리했던 일을 칭찬하였다.

송나라 여정(余靖)이 광서(廣西) 지방으로 나가서 계주(桂州)에 새 성을 쌓았다. 이때 농지고(農智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남방의 12주(州)에 주성(州城)을 수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때 여정이 성을 크게 쌓았으니 사방이 6리나 되었고 목재와 벽돌·기와·석재 등의 자재가 통산해서 400만개가 들었으며 인력은 10여만 명이 동원되었다. 방어하는 기구 또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준비하였다. 지화(至和) 원년(1054)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화 2년 8월에 완성하였다.⁴⁸⁾

북송 왕안석(王安石: 1021~1086) 「桂州新城記」에는 농즈가오가 패전하고 퇴각한 이듬해, 廣西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여정(余靖: 1000~1064)이 참혹한 전쟁으로 초토화된 계주성(桂州城)을 대규모로 수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⁴⁹⁾ 정

47) (元) 脫脫 등, 『宋史』 권290, 列傳第 49 「狄青」: “初, 青之至邕也, 會瘴霧昏塞, 或謂賊毒水上流, 土飲者多死, 青殊憂之. 一夕, 有泉湧岩下, 汲之甘, 衆遂以濟.”

48)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5, 파주, 창비, 2018, 353-354쪽. “宋余靖出廣西, 築桂州新城. 時農智高叛, 南方十有二州, 無一人能修其州者. 公乃大其城, 其方六里, 其木甃瓦石之材, 以枚數之, 至四百萬. 用人之力, 以工數之, 至一十餘萬. 守禦之具, 無一不給. 至和元年八月始作, 而二年八月成.” (원문은 『여유당전서』 第五集 政法集 第二十七卷 『牧民心書』, 『한국문집총간』에서 인용)

49) 王安石 「桂州新城記」: “農智高反南方, 出入十有二州, 十有

약용은 왕안석이 기록한 농즈가오와의 전투 이후에 벌어졌던 여정의 '修城' 일화를 예로 들어, 지방의 수령들이 여정처럼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역설하였다.

영·정조 시기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송대 역사에 조예가 깊었던 정조(正祖: 1776~1800년 재위)도 적청과 농즈가오의 전투에 관해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정조는 급기야 곤륜관(崑崙關) 전투를 시제(試題)로 출제하기도 하였다.⁵⁰⁾ 『일성록(日省錄)』 정조8년 갑진(1784, 건륭 49) 1월22일(무신)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인정전에 나아가 여에서 내려 어좌에 올랐다. 시관(試官) 이하가 예(禮)를 행하였다. “송나라 신하들이, 적청이 광서 지역을 안정시킬 때, 대보름날 밤에 연회를 열어 관속들을 머물게 하고 연식을 주지하고 있으면서 한밤중에 곤륜관을 빼앗은 것을 하례한 데 대해 의작하라. [擬宋群臣賀狄靑宣撫廣西之日, 上元夜設宴, 留僚佐主席, 三鼓奪崑崙關]”는 것으로 표제(表題)를 삼았다.⁵¹⁾

정조는 1784년 1월 22일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로 유생들을 시험하였는데,⁵²⁾ 유생들에게 상원절(上元節: 대보름날)에 벌어진 적청이 곤

二州之守吏, 或死或不死, 而無一人能守其州者.....寇平之明年, 蠻越接和, 乃大城桂州. 其方六裏, 其木、甃、瓦、石之材, 以枚數之, 至四百萬有奇. 用人之力, 以工數之, 至一十餘萬. 凡所以守之具, 無一求而有不給者焉. 以至和元年八月始作, 而以二年之六月成”. <http://www.shuzhai.org/gushi/wenyan/15736.html> (검색일: 2018년 12월20일)

50) 정조는 평소 틈틈이 『宋史』를 꺼내놓고 刪削을 할 정도로 송대 역사에 조예가 깊었다.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저, 『18세기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141쪽)

51) 『日省錄』 정조8년 갑진 1월22일(무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행하였다: “具翼善冠 袞龍袍乘輿出協陽門詣仁政殿降輿陞座試官以下行禮訖以擬宋群臣賀靑宣撫廣西之日上元夜設宴留僚佐主席三鼓奪崑崙關爲表題.” (《한국고전번역DB》)

52) 춘도기(春到記): 성균관·4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인 도기과(到記科)에는 1월 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春到記와 8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秋到記가 있다. 식당도기(출석부)의 원점 30점 이상을 딴 유생을 골라 시험을 보게 했는데, 시험과목은 강경과 제술 중 한 과목을 택하게 하여 각 과목의 1등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5 「교육제도과 과거제도」

료관을 탈환한 일을 주제로 의작(擬作)이라고 하였다.⁵³⁾ 이 시제(試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심괄(沈括) 『몽계필담(夢溪筆談)』 권13 「權智」에 실려 있는 다음의 내용이다.

당시 농즈가오는 곤료관을 지키고 있었다. 적청이 빈주에 이르렀을 때가 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적청은 등불을 성대히 걸라고 명령했다. 첫째 날 밤에 장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둘째 날 밤에는 군관들과 연향하였으며, 셋째 날 밤에는 군졸들과 연향하였다. 첫째 날 밤의 연회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둘째 날 밤에는 북이 두 번 울리자 적청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을 보내서 손원규에게 잠시 주인이 되어서 술자리를 주관하도록 시켰다. 잠시 후에 적청이 약을 먹고 빠져나갔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며 위로하니, 새벽까지 연회장에서 감히 물러가는 자가 없었다. 문득 말을 급히 몰고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하길 “오늘 밤 북이 세 번 울렀을 때, 적청 장군이 이미 곤료관을 탈환했습니다.”라고 했다.⁵⁴⁾

적청은 1053년 음력 정월 15일에 농즈가오가 점령한 곤료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빈주(賓州: 廣西壯族自治區 賓陽縣)에 도착한다. 적청은 당시의 정월 대보름 풍습대로 등불을 크게 밝히고 연회를 열어서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처럼 농즈가오 측을 안심시키고, 잠시 연석(宴席)을 빠져나가서 농즈가오를 야습(夜襲)하여 곤료관을 빼앗는다. 위의 내용은 명장 적청의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극적인 서사성이 돋보인다.

의작(擬作)의 특성이 익숙한 역사적 내용을 일정 부분 차용하거나 재창작하여 기술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⁵⁵⁾ 출제자인 정조나 응시생인 성균관 유생들 모두가

(이성무), 서울, 탐구당문화사, 1994, 333쪽 참고)

53) 의작 형식의 글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나 작품에서 소재나 주제를 취하여 논의를 펼치는 것으로, 과거 시험이나 현직에 종사하는 관료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많이 지어졌다. (우지영, 「擬作的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 『東方漢文學』 第41輯, 2009, 342-348쪽 참고)

54) 沈括, 『夢溪筆談』(『欽定四庫全書』本) 권13 「權智」: “時儂智高昆侖關. 青至賓州, 值上元節, 令大張燈燭, 首夜燕將佐, 次夜燕從軍官, 三夜饗軍校. 首夜樂飲徹曉, 次夜二鼓時, 青忽稱疾, 暫起如內. 久之, 使人諭孫元規, 令暫主席行酒, 少服藥乃出, 數使人勤勞座客, 至曉, 各未敢退. 忽有馳報者云, 是夜三鼓, 青已奪昆侖矣.”

이 사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정조가 이 주제를 춘도기 시제(試題)로 삼은 것은 마침 대보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즉흥적으로 출제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출제 의도가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평소 왕권확립과 부국강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정조가 곤륜관 전투 내용을 눈여겨보면서, 농즈가오를 물리친 적청과 같은 뛰어난 지략이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이후 중국에서 '대보름날 삼경에 곤륜관을 탈환하다(上元三鼓奪崑崙)'라는 고사로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 많은 시, 잡극, 역사연의 소설 속에 기재되었는데,⁵⁶⁾ 조선시기 지식인들도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여기고 회자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윤기(尹愔: 1741~1826)도 일찍이 『무명자집(無名子集)』 「상원(上元)」에서 “적청은 객들이 연회하는 사이 승전하여 곤륜관 빼앗았네.(宴客奪關狄凱旋)”라고 적었다.⁵⁷⁾ 그는 이 시 속에서 대보름에 관한 유래와 풍습, 일화를 나열하면서, 곤륜관(崑崙關) 전투를 함께 적어서 이 사건이 대보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임을 나타내었다.

19세기말(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반재원(潘在元: 1854~1921)은 1895년 2월에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을 지어서 1894년 3월 이후 예천(醴泉) 지역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 진압의 과정을 관군의 입장에서 일기형식으로 자세히 남겼다. 『갑오척사록』 부록(附錄) 「북삼면(성곡면·유동면·제고곡면) 사림이 향교에 보낸 글(北三面湑谷面流洞面諸古谷面士林通鄉校文)」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동서남북 사방의 땅은 모두 삼한의 영토가 아님이 없다. 북을 3번 울려서 곤륜(崑崙)의 성채를 빼앗으니 농지고(農智高)는 달아났다. 소 10마리로 북문(北門)의 군사들을 먹인 상인 현고(弦高)는 참으로 가상하다. 마을

55) 우지영, 위의 논문, 354쪽 참고.

56) 남송 시인 劉凱莊(1187~1269)의 시와 명대 『水滸傳』 등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夜奪崑崙關'이 송대부터 이미 잡극으로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시훈, 위의 논문, 154쪽)

57) 『無名子集』 제3책 「대보름 30운(上元 三十韻)」.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을 불살라, 비록 성안 사람들이 무관하게 재앙을 받았지만, 방책을 두루 모아서 산택(山澤)에서 호랑이 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괴수를 죽이고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자들은 용서함에 이르러서는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⁵⁸⁾

위의 글은 동학농민 전쟁을 경상도 예천의 유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기록이다. 여기에서도 곤륜관을 탈환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조선시 후기에 이 이야기가 널리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유학자들이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를 농즈가오에 견주어 주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동학농민군을 도적의 무리로 간주하여 척사(斥邪)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즈가오에 대해서는 ‘儂賊智高’라고 하여 ‘도적 농즈가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이 주목할 만한데, 이를 통해 19세기말까지 조선시기의 지식인에게 농즈가오는 여전히 반란자, 도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농즈가오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즈가오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농즈가오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선조실록」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랑캐를 지칭하는 말인 ‘험윤’이나 ‘흉노’ 등과 더불어 ‘농즈가오’를 등장시켜 외적(外敵), 특히 왜적(倭賊)에 비유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중, 후기에는 농즈가오가 도적, 그중에서도 임격정을 비유하는데 등장하였다.

18세기 영·정조 시기에는 이덕무, 박윤원,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이 농즈가오를 언급하였다. 박윤원과 정약용은 농즈가오를 강물에 독약을 풀어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으로 광서지역을 폐허로 만든 인물로 기록하였고, 이덕무는 농즈가오 등이 원래 기개가 크고 뜻을 지닌 인물들이나 과거제도의 희생자라고 여겼다. 이덕무는 농즈가오의 도덕성을 비난하지 않고 사회제도적인 검토를 촉구하였는데 그

58)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회編,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1, 서울, 史芸研究所, 1996. 126쪽. “自西自東, 自南自北, 地莫非三韓幅員(필자주: 원문은 「幘」이나, 「員」의 착오로 판단됨), 三鼓奪崑崙之寨, 儂賊智高自當遁避, 十牛犒北門之師, 商人弦高, 實用嘉尚, 焚蕩巢穴, 縱有城門池魚之殃, 運合籌策, 不失山澤窵虎之機, 至若誅其魁而有脅從夫, 孰曰不可乎?”

의 견해는 매우 선진적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에는 적청이 정월 대보름에 곤륜관을 아습하여 빼앗은 고사(上元三鼓奪崑崙)가 회자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宋史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던 정조는 이를 시제(試題)로 삼아 성균관 유생을 시험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문인 윤기(尹愷)도 「상원(上元)」이란 시에서 언급하였다. 19세기말 동학농민전쟁 발발 이후에 간행된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에도 곤륜관을 탈환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를 농즈가오에 견주어 도적이라고 부르며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니, 19세기말까지 조선 문헌에서 농즈가오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먼저 농즈가오에 대한 중국 문헌과 좡족 설화에서 나타난 상반된 평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즈가오가 조선시기의 문헌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의 문헌에서 농즈가오는 잔인무도한 인간으로서 반란자, 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반하여, 좡족 설화에서는 지혜롭고 용맹하며, 정의로운 위대한 영웅으로 간주된다. 근래에 중국학자 張樹霞는 중국문헌과 좡족의 전설에 나타나는 농즈가오의 상반된 형상은 전승되는 민족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이러한 편이하게 다른 기록의 이면에는 자기민족 중심주의의 사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⁹⁾ 농즈가오에 대한 이러한 양극화된 평가에는 당시 적대 관계였던 양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통해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이라도 기록자의 시선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농즈가오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험윤, 흉노와 더불어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존재의 대명사가 되어 주로 외적(外敵), 특히 왜구(倭寇)를 비유하

59) 張樹霞, 「漢族想象中的“他者”與壯族的“自塑形象”—關於儂智高形象兩種文本的比較分析」, 『凱里學院學報』 제26권 제5기, 2008년 10월, 138-140쪽.

는데 언급되었으며, 조선시기 중, 후기에는 임궽정과 같은 도적의 무리를 비유하는데 등장하였다. 비록 18세기에 실학자 이덕무가 농즈가오가 원래는 호탕하고 뜻을 품은 사람이었으나 과거에 낙제하여 도적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사회 제도적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도 여전히 농즈가오를 도적으로 간주하였으니, 조선시대의 농즈가오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농즈가오라는 이름은 19세기 말에도 조선 문헌에 등장하여 동학농민군의 수령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으니, 그때까지 농즈가오는 여전히 진압하고 토벌해야 할 반란의 상징 인물로 조선지식인들에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조선시기 문헌에 나타난 농즈가오의 이미지는 ‘외적(왜구)’, ‘도적’, ‘반란자’ 등으로 나타나는데, 중국문헌에 기재된 농즈가오의 형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의 학자들이 중국 문헌 자료를 통해서 농즈가오를 대면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송대 문인에 의해 타자화(他者化)된 농즈가오의 이미지가 그대로 조선에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선 시기는 성리학적 이념이 정치와 학문 등을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동일한 관점에서 농즈가오를 비롯한 소수민족이나 이민족을 바라보는데 거부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옛 문헌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수장(首長)에 대한 서술을 발견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비록 그것이 어떤 입장이나 시각에 치우친 면이 있더라도 중국 소수민족 연구자료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소중한 기록이다. 우리의 문헌에서 이웃 나라의 여러 민족들에 관한 기록 자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시대적인 편견을 걷어내고 연구하는 작업은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조선)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조선) 朴胤源, 『近齋集』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 (조선)尹愔,『無名子集』(『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 (조선)李德懋,『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 (조선)趙泰億,『謙齋集』(『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 (宋)余靖,『武溪集』(『摛藻堂四庫全書薈要』本)
- (宋)司馬光,『涑水紀聞』(『欽定四庫全書』本)
- (宋)曾鞏,『隆平集』(『欽定四庫全書』本)
- (宋)沈括,『夢溪筆談』(『欽定四庫全書』本)
- (宋)魏泰,『東軒筆錄』(『欽定四庫全書』本)
- (宋)張端義,『貴耳集』,臺北,木鐸出版社,1982.
- (元)脫脫 등,『宋史』,臺北,鼎文書局.
- (元)『宋史全文』(『欽定四庫全書』本)
- (明)陳邦瞻,『宋史紀事本末』(『乾隆御覽四庫全書薈要』本)
- 김경용,『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서울,교육과학사,2005.
- 김수미,『남제서(南齊書)』백제전의 힘운,홍리(匈牙利)와 대방(臺舫)의 실체,『용봉인문논총』35권,2006.
- 羅彩娟,『空間記憶與族群認同——雲南省馬關縣壯族的“儂智高”紀念實踐』,『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2,3.
- 羅彩娟,『千年追憶:雲南壯族歷史表述中的儂智高』,桂林,西師範大學出版社,2012.
- 凌春輝,『論壯族民間傳說中的儂智高』,『百色學院學報』,2007년 第1期.
- 凌春輝,『靖西儂智高傳說的美學內涵——靖西民間文學研究之二』,『廣西右江民族師專學報』第13卷 第3期,2000年9月
- 동북아역사재단,『宋史外國傳譯註 3』,서울,동북아역사재단,2013.
-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회編,『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1,서울,史芸研究所,1996.
- 滕蘭花,『廣西南寧儂智高崇拜淺談』,『文山學院學報』,第30卷 第2期,2017年4月.
- 莫家仁,『儂智高:沸沸揚揚的千年議題』,『廣西民族研究』,2000년 第2期(總第60期).
- 范宏貴,『同根生的民族』,北京,民族出版社,2007年
- 范宏貴,『儂智高及其影響』,『廣西民族研究』,1995年 第2期.
- 白耀天,『儂智高:歷史的幸運兒與棄兒』,北京:民族出版社,2006
- 白耀天,『南天國與宋朝關係研究』,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4.
- 성시훈,『적가장소설의 기원 및 변천』,『매화논총』제19집,2000.
- 張聲震 主編,覃彩鑾 編著,『壯族史』,廣州,廣東人民,2002.
- 張樹霞,『漢族想象中的“他者”與壯族的“自塑形象”——關於儂智高形象兩種文本的比較分析』,

- 『凱里學院學報』 제26권 제5기, 2008년 10월.
-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5, 파주, 창비, 2018.
- 中國民間文學集成全國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廣西卷)』, 北京, 新華書店, 2001.
- 陳慶浩, 王秋桂 主編, 『廣西民間故事集(2)』, 臺北, 遠流出版社, 1989.
- 黃玲, 「記憶, 實踐與文化遺產: 中越跨境族群儂智高信仰比較研究」, 『廣西民族研究』, 2014年 第6期
- 黃振南, 「儂智高生卒年月及血親關係試辨」, 『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5年 第3期.
- 윤승연, 「전통시대 베트남, 중국의 대외관계 - 11세기 베트남의 중국 침략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第92輯, 2014. 10.
- 이근명, 「11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34호, 2011.
- 이한우, 『선조 조선의 난세를 넘다』, 서울, 해냄출판사, 2007.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저, 『18세기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list?itemId=MO&gubun=book>

〈Abstract〉

A Study on the Records of Nong Zhigao, the Zhuang People's Hero,
as Shown in the Texts of the Joseon Period

Chang, Chung-Hae

Nong Zhigao is the forefather and great hero for the Zhuang people, a minority ethnic group in China. He founded Danan Guo at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Vietnam during the reign of Emperor Renzong (仁宗) of Song. When quelled by Di Qing (狄青), a great general of Song, he fled but was eventually killed.

His life and wars with Song are described the most in the Chinese records, and as documents affiliated with the Zhuang people, the orally transmitted tales may be helpful, as well. The two sides offer quite opposite views on Nong Zhigao. The Chinese records view Nong Zhigao as a bandit who raised a rebellion and brutal man, whereas the Zhuang people's ethnic tales depict him as a hero and demigod.

Nong Zhigao also appears in the texts of the Joseon period, frequently showing in the record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The texts of the Joseon period mention Nong Zhigao mainly to compare the Japanese pirates or bandits like Im Kkeokjeong to him, and eventually his name was used to negatively refer to the chief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late 19th century. Thus, we can see that the image of Nong Zhigao described in the texts of the Joseon period was what was transmitted as otherized by the men of letter of the Song dynasty, and that th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period viewed the foreign people including Nong Zhigao from the same perspective as China did, by taking the New-Confucian view of history.

〈국문초록〉

농즈가오는 중국의 소수민족 좡족의 선조이자 위대한 영웅이다. 송대 인종(仁宗) 시기에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지역에서 대남국(大南國)을 건립하고 칭제하였다가, 송의 명장(名將) 적청(狄靑)에게 패하여 대리국(大理國)으로 피신한 이후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의 생애와 송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중국 문헌에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좡족의 자료로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들을 참고할 수 있다. 농즈가오에 대한 양측의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중국의 문헌에 묘사된 농즈가오는 반란을 일으킨 도적이자 잔인무도한 인간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반하여, 좡족 설화에서 그는 영웅이자 신(神)적인 존재이다.

농즈가오는 조선시대 문헌에도 출현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영, 정조 시기의 문헌에 많이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농즈가오는 주로 외적(왜구)이나 임궽정과 같은 도적의 무리를 비유하는데 언급되었고, 급기야 19세기 말에는 동학농민군의 수령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문헌에 기재되고 있는 농즈가오의 이미지는 송대 문헌에 의해 타자화(他者化)된 이미지가 그대로 전승된 것이며, 조선조의 지식

인들이 성리학적 역사관에 입각해 중국과 동일한 관점에서 농즈가오를 비롯한 이민족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제 어: 농즈가오(儂智高), 농지고(儂智高), 좡족(壯族), 광서(廣西), 적청(狄靑)

Key words: Nong Zhigao, Nong Jigo, Zhuang people, Guangxi, Di Qing.

이 논문은 2019년 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